

나주시, 지역 식품산업 지속가능한 경쟁력 모색

푸드업사이클링 주제 포럼 개최 농축산 부산물 활용해 가치 창출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수단도 푸드테크연구센터 구축 예정

지속 가능한 미래 식품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푸드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이 나주에서 열렸다. 전문가 초청 기조연설, 주제 발표 등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남대학교 푸드테크학과와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2024 나주푸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푸드테크 분야로 나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푸드업사이클링의 산업적 가치와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변화하는 식품산업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나주시, 나주농업진흥재단이 주최, 전남대 푸드테크학과가 주관했으며 국내외 푸드업사이클링 산학연관 전문가 초청 기조연설, 세션 발표, (사)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광주전남지회 발대식 등 총 3부에 걸쳐 진행됐다.

주요 연사로는 미국 Chyer Kim 버지

니아 주립대학 교수, Min Alexander M (민 알렉산더 명준) ㈜리하베스트 대표, 이주봉 ㈜더데이원랩 대표,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창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팀장 등이 참여해 분야별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포럼 주제인 푸드 업사이클링(Food Upcycling)은 농·축산 및 식품가공 부산물 등 상품 가치가 낮은 자원을 활용, 새로운 기술을 융합시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푸드테크 10대 분야 중 하나다.

식품 부가가치뿐 아니라 자원 순환에 따른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서 2032년 시장 규모가 110조원으로 평가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포럼 기조연설에선 버지니아주 농업 구조, 글로벌 식품산업 동향에 따른 나주시의 푸드 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와 연계한 나주시의 역할, 북미 푸드 업사이클링 민간인증제도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소비시장 전략과 관련 정책 방향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세션 1부는 '푸드업사이클링을 통한 친환경 대체식품 개발과 미래 도전과제' (민 알렉산더 명준 대표이사), '식품 부산물 혁신: 푸드업사이클링을 통한 지속 가능 패키징 및 농업용품 솔루션' (이주봉



지난 25일 나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2024 나주푸드포럼'이 개최됐다. 나주시 제공

대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2부에선 '푸드업사이클링 북미 민간인증제도 소개 및 소비시장 활성화 전략' (우병준 선임연구위원), '푸드테크 푸드업사이클링 정부정책방향' (김영수 농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장)을 다뤘다.

나주시는 올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푸드테크연구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나주 일반산업단지 일원(부지 3417㎡)이며 지상 2층, 연면적 1612㎡ 규모로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센터에선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개회사에서 "나주는 푸드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역 농축산물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산학연관이 협력해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주푸드테크 업사이클링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김용의 기자



이동식 악취측정차량 운영 영광군,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

영광군은 악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악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군서농공단지 및 가축사육시설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민원 해소를 위해 군에서는 예산 1억원을 들여 현장에서 악취 측정 및 포집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했다.

이동식 악취측정차량은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과 포집이 가능한 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기상데이터를 측정하여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기별로 분석할 수 있다.

기존 고정식 무인악취포집장치 2대를 운영하던 군은 고정식 장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동식 차량을 도입한 만큼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야간 및 새벽 악취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이동식 악취측정차량 도입으로 신속한 민원대응과 악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함평군, 동절기 인명 피해 예방

함평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27일 함평군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동절기와 나머지 기간의 수확기로 구분돼 운영된다.

함평군은 이번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으로 28명을 선발, 안전한 포획활동과 야생멧돼지 ASF 대응요령 등 관련교육을 마치고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폐사체 예찰, 밀렵 감시 및 단속, 부상동물 구조 등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농작물 피해 예방과 ASF 확산 방지에 앞장서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야생생물 환경보전에 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2024년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멧돼지 180마리, 고라니 131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신재현 기자



산불전문 진화대 역량강화 교육 고흥군, 전문강사 동반

고흥군은 지난 25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 80명을 대상으로 산불 대응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전문 강사 2명을 초빙해 산불 예방 및 안전한 진화에 관한 이론교육과 함께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방어선 구축 방법, 산불 진화 기계화 장비와 진화 차량 운영 방법 등 현장실습을 포함한 산불방지 직무교육으로 진행됐다.

김태호 환경산림과장은 "신속하고 안전한 산불재난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 없는 안전한 고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군민의 재산과 아름다운 숲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지난 10월24일 산불진화 통합 훈련을 실시했으며 주월산 등 10개소를 입산 통제하고 산불인력 80명을 산불 취약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지난 26일 곡성군 죽곡면 복지회관에서 죽곡면 지사협 위원들이 김장을 하고 있다. 이날 김장한 김치 480kg은 관내 취약계층 48가구에 전달됐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죽곡면, 주민주도 김장김치 나눔 활동

지난 26일 곡성군 죽곡면에서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정애반하다' 사업 일환으로 죽곡면 복지회관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27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죽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힘을 합쳐 총 480kg 김장김치를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마련했

다. 면민들의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는 행사에 참여한 위원과 회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죽곡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48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임수태 죽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

웃들에게 직접 담근 김치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상태 곡성군수는 "죽곡면에서 이는 따뜻한 나눔의 정이 우리 군 전체에 퍼져 주민들이 훈훈한 겨울을 나길 바란다"며 "나눔행사를 진행해주신 죽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사회단체 여러분들에게 군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곡성-김대명 기자

나주시, 이주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임금체불·산재 등 사례 중심

나주시가 최근 관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 권익 보호와 노동 인권 증진에 나섰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고

용노동부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앞으로도 관내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노동법률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은 나주시 시민노동사 박영민 공인노동사를 초청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주노동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 및 권리침해 시 대응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교육이 관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